

##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휴머니즘』<sup>1)</sup>

정 이 나

### 1. 현실을 이해하는 ‘이론’의 폐쇄성

책의 서문은 역사적으로 철학이라는 사상의 틀이 거꾸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는 들뢰즈의 비판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론과 사상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 현실들은 이제 거꾸로 이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비판의 도구가 되는 이론과 사상이 현실을 더 이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휴머니즘』(*El Humanismo Socialista Venezolano del Siglo XXI*)의 저자 마리오 사노하(Mario Sanoja Obediente)를 통해 드러난다. 결국 기존의 지배적인 서구사상의 패러다임과 철학으로는 현재의 베네수엘라 사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현실의 구체성, 그리고 그 사회의 역사성과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일반

1) Sanoja Obediente, Mario(2008), *El Humanismo Socialista Venezolano del Siglo XXI*, Caracas: Monte Ávila.

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위치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회, 정치 혹은 경제를 분석하는 기존의 주류 사상의 패러다임은 지금의 베네수엘라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에 인류학자 마리오 사노하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대중적인 언어로 명료하고 분명한 문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2008)

반사회주의자들은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참담한 실패의 경험을 근거로 21세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정통 좌파지식인들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한다. 이유는 명쾌하다.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 아니라 노동자 출신이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는 정통 좌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 정부의 등장은 이런 맥락에서 제법 환영을 받았으나, 현실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룰라의 정책은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즈음에 노동자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던 부산했던 움직임도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베스처럼 군부출신의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못내 못마땅한 듯하다. 이에 베네수엘라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과 성과를 민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서

습지 않는다. 특히 현대의 사회운동과 주체 개념을 발전시킨 알랭 투렌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사회적 주체를 강조하는 지식인이었기에 그 영향력은 더욱 파급적이다. 아마도 알랭의 주체 개념에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주체성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리라. 과연 알랭과 같은 지식인들은 베네수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 2. 알랭 투렌의 사회적 “주체”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투렌의 주요 개념인 주체와 사회운동에 대한 생각은 저서 『현대성 비판』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알랭 투렌은 도구적 합리주의로 점철된 현대주의를 비판하며 주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이성에 대한 맹목적 추구가 급기야 극단적 형태의 사회적 종속, 즉 이성의 독재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이성, 비판적 사유의 해방적 힘, 개인주의의 유효성을 포기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알랭 투렌이 주장하는 사회적 주체의 존재방식은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독립된, 그래서 자유스러운 개인의 형태이다. 그와 동시에 민중의 이름으로 말하고 민중을 삼켜버리는 국가권력을 건설하는 전위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선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순간에 자유를 누린다는 환상을 부여하는 소비사회를 주체에 대한 위협과 파괴의 세력이라고 정의한다. 즉 알랭 투렌의 주체는 소수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이며, 기호의 세계로 녹여버리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게 하는 소비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워 지는 것을 요구한다. 언뜻 보면 사르트르적인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기존 사회질서의 지배에 반항하는 사회운동의 행위자로서 개인적 주체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사르트르적인 관념적 실존방식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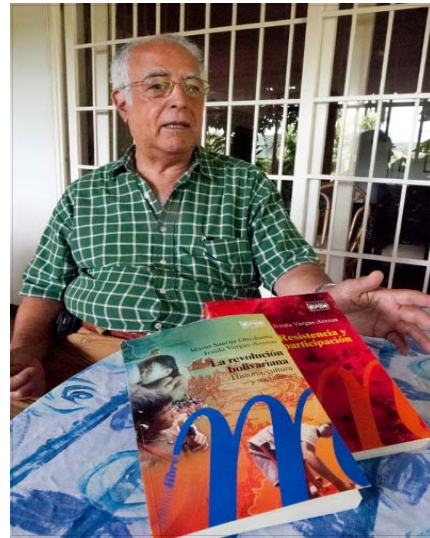
벗어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랭 투렌이 주장하는 사회적 주체는 여전히 관념적 수준에서의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랭 투렌은 현실에 기반을 두며 체제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개인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현대사회에서 행위자를 정의하는 방식에서도 그렇다. 이제 행위자는 계급사회의 시기에서처럼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운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알랭 투렌은 물질적 이익에 이성을 종속시키는 권력에 대항하는 집합행동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하며, 현대사회는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사회변혁 운동을 얼마 전 작고한 차베스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수사적 담론과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거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실 조건에서는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지적처럼, 알랭 투렌이 주장하는 주체는 베네수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실재할 수 없는 개인일 뿐이다. 오히려 베네수엘라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조건에서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대한 이상과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실재하는 사회적 주체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전무후무한 베네수엘라식 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이론이 아닌 베네수엘라 사회의 미시적인 변화에서부터 거시적인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까지를 가장 가까운 현실에서 바라보며 설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인류학자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3. 대중의 언어로 사회주의 혁명을 설명하다.

인류학자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언어는 쉽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변화와 그 과정을 기존의 이론적 틀에 얽매이지 않은 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베네수엘라 현실의 학문적 분석이나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현실 변화를 위한 행위의 담지자, 즉 일반대중을 위한 대중서이다. 21세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주의를 경험했고, 그 결과로 현실사회주의의 참담한 실패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되었다. 마치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20세기 후반 내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사고는 오랜 시간 대안적 사회 질서를 찾던 사람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과거 급진적인 사회혁명운동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개혁주의라고도 부르는 이 흐름은 자본주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지배질서로 받아들이는 합리적 현실주의와 동격이다. 과거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서구 자본주의의 변영으로 인해 더 이상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후쿠야마의 선언의 유효함이 압도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자본주의의 변영과 함께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고, 빈곤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의 변영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의 심화되는 착취 구조와 폐단

을 비판했다. 이 같은 이중성은 베네수엘라 사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약 40여 년 동안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이양이 이루어진 가장 모범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라틴아메리카의 유일한 국가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석유 수입으로 번성하는 메트로폴리스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형성된 광범위한 도시의 빈민가는 또 다른 현실이었다. 극단적으로 양분된 두 사회가 형성되어 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민중 가수 알리 프리메라는 이 같은 현실을 풍자하여 “부자들의 애완전을 위한 학교는 있어도, 가난한 민중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없네”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과두제의 금권 정치로 점철된 베네수엘라의 지배계급은 미국이 마셜플랜을 4번이나 수행하고도 남았을 액수의 해외반출, 급기야 이렇게 반출된 자본으로 베네수엘라 자국을 상대로 이자를 받도록 투기 자본화 했으며, 기업은 국가를 담보로 얻은 외채를 또 다시 외국은행의 비밀계좌를 통해 착복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부패를 여실 없이 보였다. 석유수출국에서 석유 시세가 가장 높던 시기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입된 긴축재정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가장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극단적 위기로 몰고 갔다. 이것이 1989년 카라카스 사태의 서곡이었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베네수엘라서만 일어난 비극은 아니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엄청난 채무 국가가 되었으며, 원금상환보다 이자로 지급한 액수가 이미 훨씬 초과해 버렸다.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구제 금융의 양면성이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실제적인 의사결정권은 미국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사실이며, 얼마 전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좌지우지 했던 것도 미국 기업이었다. 또한 2002년 베네수엘라 쿠데타 개입 의혹 등은 차베스 집권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불편한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두 국가의 갈등과 반목은 반제국주의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며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차베스 개인의 비이성적인 정치적 선택인 듯 다루어졌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포폴리



1989년 2월의 카라카스 사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IMF 권고안에 따라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카라카스 및 근교의 취약계층이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게 된 사건이다. 공권력의 진압으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삼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즘 이외의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가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선택과 평가가 먼저 아닐까?

195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념 전쟁이 그야말로 치열했다. 1954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시도하던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 게릴라와 30년 넘게 내전이 지속되었으며, 쿠바 사회주의 등장은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을 긴장시켰고, 칠레의 아옌데 정권 몰락의 원인을 반제국주의적 정서에서 굳이 찾지 않더라도 첨예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사회 모순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칠레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혹독한 군사독재에 의해 가장 자유주의적



인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시카고 보이즈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결국 자본주의가 주장하던 자유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

1950년대 말 이후 도입된 푼토피호 체제는 이렇다 할 군사 쿠데타의 개입 없이 약 40여 년 동안 평화적인



1958년 당시 푼토피호 협약을 위해 모인 3당 지도자들. 왼쪽부터 라파엘 칼데라(COPEI), 호비토 비알바(URD), 로물로 베탕쿠르(AD)

정권이양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로 평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였다. 하지만 정작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찬사를 받는 국가, 동시에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천인 석유가 과두지배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사회경제구조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국가 구조의 양면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복잡한 이론적 설명이나 패러다임의 설정 없이 현재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회를 구사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그의 책에는 차베스 개인의 영웅주의, 혹은 카리스마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는 유능한 정치꾼으로서 그 어떤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차베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를 우스꽝스러운 영웅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서방 언론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친자본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국제무대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국가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이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베네수엘라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구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노하 오베디엔테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일목요연한 방식으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사회적 결과를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 분명하고 쉬운 언어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그람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편견과 기존사고의 경직된 이론의 틀이 아닌 현실 그대로를 인식하고, 주변인의 해석이나 편견에 기대지 않을 때 지금의 베네수엘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접근은 가장 인류학적인 접근에 가까운 이해 방식이다. 그것은 사회의 미시적인 움직임, 변화, 사람들의 표정과 일상적인 대화, 관계의 설정방식, 사회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 행동의 발견과 관찰 등을 통해 포착되는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자 사노하 오베디엔테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전무후무한 변화, 급변하는 정세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의식수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양사상, 철학, 이론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베네수엘라 민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규정하는 지식인들의 존재도 거부한다. 결국 지금 자신들의 베네수엘라를 타자의 시선으로 고정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

#### 4. 차베스, 그리고 베네수엘라

타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차베스 대통령 개인과 석유뿐이다. 개인 영웅주의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적인 차베스 대통령과 그런 개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물질적인 기반 조건인 석유의 존재가 그것이다. 사회적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지배논리에 저항하는 창조적 개인을 주장하는 알랭 투렌의 주체 개념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회변혁의 행위의 담지자인 민중의 주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는 듯하다. 즉, 결과적으로 차베스가 없는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차베스 개인의 존재가 지금의 베네수엘라 사회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에 바로 사회 분석이 구조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기능주의적 오류이다. 즉,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치열한 사회 계급투쟁의 결과물이지,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아니다.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심화된 사회 모순의 누적은 지금의 폭발적인 대중운동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원인이다. 사회 모순은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재구조화되거나 조정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차베스 대통령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차베스의 부재로 베네수엘라 사회변혁의 형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치열한 사회 갈등을 통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부재하는 건 차베스 개인이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사회적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행위자는 계급사회의 시기에서처럼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알랭 투렌의 주장은 베네수엘라 사회에서는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적 투쟁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에서 계급을 일거에 제거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는 관념론자의 유토피아적인 이상 추구에 가깝다. 현실을 개혁하는 힘은 항상 이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실세계의 인간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상상력일 뿐이다. 지금의 베네수엘라 사회의 모습은 그 동안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사회의 개별성과 특수성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사노하 오베디엔테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사회가 엄연한 계급사회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베네수엘라 방식의 사회주의

를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역사적 경험에 의해 사회주의는 경직되고 유토피아적이며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스탈린주의로 점철된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현재 쿠바 사회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 등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갖는 것이 비현실적인 선택인 듯 호도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단과 인간 소외를 극단화 하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미미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지배 질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적 질서보다는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의 중심에 있는 사회이다.

## 5. 사회적 주체, 그리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석유수입으로 인해 경제가 번성하고 가장 모범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안 인구의 80%이상은 도시 빈민가를 형성하였다. 60년대 이후 도시의 생활권은 도시의 외곽을 빙 둘러싼, 바리오라고 부르는 빈민가와 호화스러운 도심으로 나뉘어졌으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관료적 횡포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가의 악순환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리오 단위의 지역단체가 형성되어 갔다. 오랜 시간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된 지역 단위의 주민, 청년 조직은 현재 베네수엘라 사회의 역동성을 가능하게 한 개인들의 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개인과 베네수엘라 사회를 동일시하고, 정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현황(2012년 기준)

**TABLE 2**  
**Venezuela: Centr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1998-2006)<sup>/a</sup>**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Public Spending	23.7	24.5	29.6	31.6	29.4	31.0	28.4	28.5	31.0
<b>Total Social Spending</b>	<b>8.2</b>	<b>9.4</b>	<b>11.0</b>	<b>12.1</b>	<b>11.2</b>	<b>12.1</b>	<b>11.8</b>	<b>11.6</b>	<b>13.6</b>
Education	3.4	4.1	4.5	4.8	4.8	4.6	4.8	4.1	5.1
Health	1.4	1.5	1.4	1.5	1.7	1.5	1.6	1.6	1.8
Housing	1.0	0.8	1.7	1.0	0.8	1.1	0.6	1.3	1.6
Social Security	1.4	2.0	2.2	3.4	2.8	3.4	3.1	3.0	3.6
Social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0.8	0.9	0.8	0.9	0.8	1.1	1.2	0.9	1.0
Culture and Social Communication	0.2	0.1	0.2	0.2	0.1	0.3	0.3	0.3	0.3
Science and Technology	0.1	0.1	0.2	0.3	0.1	0.1	0.3	0.3	0.2
Social Spending (% of Public Spending)	34.7	38.5	37.3	38.4	38.2	39.0	41.4	40.6	44.0

**Source:** Sistema de Indicadores Sociales de Venezuela (SISOV) and Banco Central de Venezuela (BCV)

**Notes:**

<sup>/a</sup> Does not include social spending by PDVSA, the state oil company, which in 2006 contributed \$13.3 billion (or 7.3 percent of GDP) to social projects

베네수엘라 사회 보장 비용 지출 현황(1998~2006)

작 역동적 힘의 발원지이며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주체의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은 보지 않는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회변화의 모습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지배질서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과 여지없이 드러나는 모순적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휴머니즘』은 이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책일 듯하다.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처한 현실과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성과, 그리고 그 과정을 단순 명료한 문제와 변혁의 필연성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자본주의가 번성하던 시대에 심화되는 빈부격차,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형성 과정, 그리고 모순적 악순환을 극복해가는 사회 변화의 모습과 성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이룩한 교육, 건강, 복지수준의 사회적 업적을 단순히 포퓰리즘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론적 한계와 폐쇄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사회의 선택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의 편협함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는 문화적이자 동시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려되고 분석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과학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객관적인 보편성 추구하는 습관이 개별 국가의 역사

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갖가지 국가 정책을 도입하는 폭력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주장은 타당하다. 약 500년 이상 지속된 유럽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역사와 뒤이은 미국과의 자본주의식 착취관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구조적 모순을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이며, 사회문화적 배경 형성을 위한 베네수엘라 사회의 총체성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지난 세기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 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사회변혁의 모습을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이론적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엿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알랭 투렌(1995), 『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제프 일리(2008), 『The Left 1848~2000 -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유강은 옮김, 뿌리와이파리.  
 마이크 데이비스(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Grohmann, Peter(1996), *Macarao y su gente, Movimiento Popular y Autogestion en los Barrios de Caracas*, Caracas: UNESCO.

---

정이나 -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중남미 사회인류학 전공